

## 제24장

24

### 가금 부문 수급 동향과 전망

지인배\* · 김형진\*\* · 정세미\*\*\* · 지선우\*\*\*\*

#### 1. 산란계

- 1.1. 2016년 HPAI(7차) 발생 상황
- 1.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 1.3.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 2. 육계

- 2.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 3.2. 닭고기 교역 여건 전망
- 3.3.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 3. 오리

- 3.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 3.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iinba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junjang0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jdtpal55@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bsn02@krei.re.kr

## 01 산란계

## 1.1. 2016년 HPAI 발생(7차) 상황

- 지난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하였다. 이후 전남 무안, 전북 김제, 충남 천안·아산, 경기 양주·포천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철새 도래지 및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이번 HPAI 발생 혈청형은 기존의 발생했던 유형(H5N1, H5N8)과 다른 H5N6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하였다. H5N6형 바이러스는 강한 전염성과 빠른 전파력을 가지며, 기존 바이러스와 달리 오리에서 상당히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야생조류 예찰에서는 2개 유형(H5N6, H5N8)이 검출되었다.
- 1월 11일 까지 HPAI는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10개 시·도, 37개 시·군에서 발생하였다. 양성 판정을 받은 발생 농장은 325농가이며, 매몰 처분 된 가금류 마릿수는 약 3,170만 마리이다. 이번 7차 HPAI의 발생은 과거 1~6차 발생과 비교하면 최단 기간 최대 매몰 처분 마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 － 1월 11일까지 총 매몰 처분된 가금류 마릿수 중 산란계는 2,300만 마리(전체 사육의 32.9%), 산란종계 43만 7천 마리(51.5%), 오리 245만 마리(28.0%)가 매몰 처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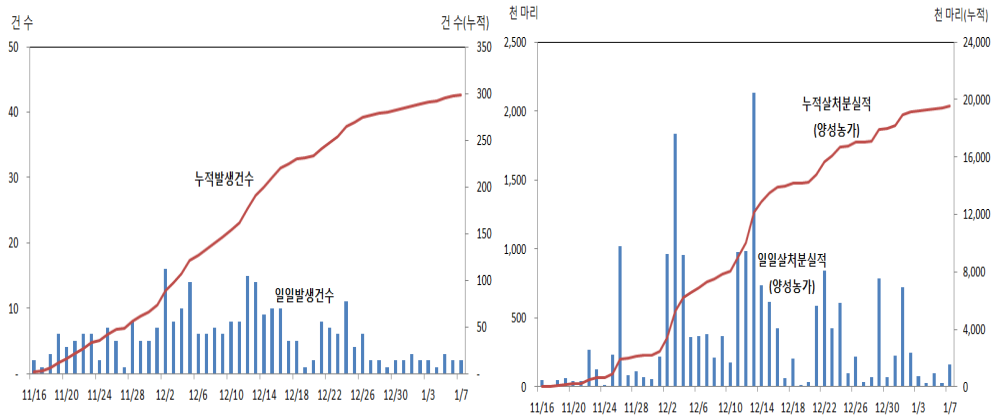
표 24-1.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류 매몰 처분 마릿수

단위: 만 마리

구분	닭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 토종닭	오리	메추리 등
매몰 처분 마릿수 (사육대비 %)	2,680 (17.3)	2,300 (32.9)	43.7 (51.5)	245 (3.2)	245 (28.0)	245 (16.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24-1. AI 양성 건수 및 살처분 마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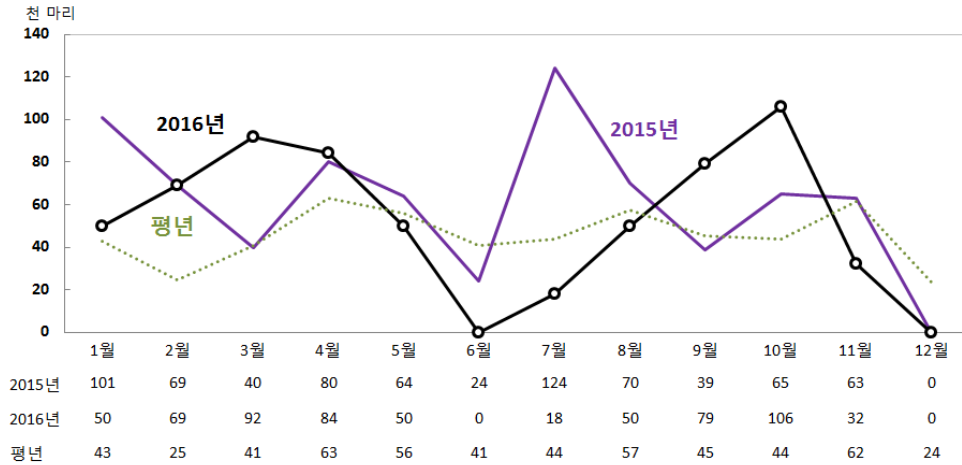
☐ 살처분 마리수는 양성농가 기준임(예방적 살처분 약 1,238만 마리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1.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 1.2.1. 산란계 사육 동향

- 2016년 산란종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63만 마리로 2015년(73만 9천 마리)보다 14.7% 감소하였으나, 평년(52만 마리)보다 21.1% 증가한 수준이다. 2016년 1~11월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4,441만 마리로 2015년 동기(4,407만 마리)보다 0.8% 증가하였으며, 평년(3,599만 마리)보다는 22.7% 증가하였다. 2016년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985만 마리로 2015년(7,209만 마리)보다 3.1% 감소하였다.

그림 24-2. 산란종계 입식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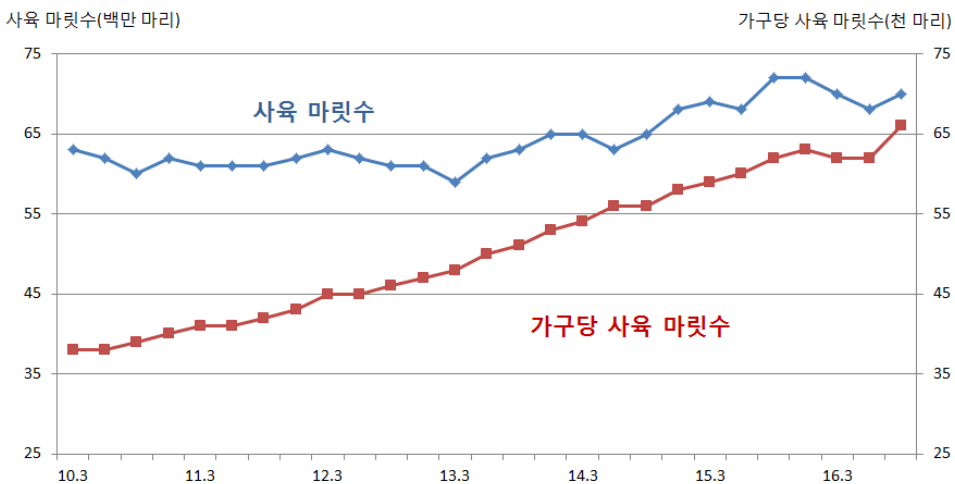


☐ 평년은 2011~15년 입식 마릿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대한양계협회

- 2016년 1~11월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2015년(3,350만 마리)보다 2.5% 감소한 3,265만 마리였다. 2016년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과 전체 사육 마릿수는 2015년과 비슷하였으나 하반기 계란 산지가격 상승으로 성계 도태가 감소하였다.
- 2016년 9월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1,061가구로 2015년 9월(1,167가구)보다 9.1% 감소하였다.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6만 6천 마리로 2015년(6만 2천 마리)보다 6.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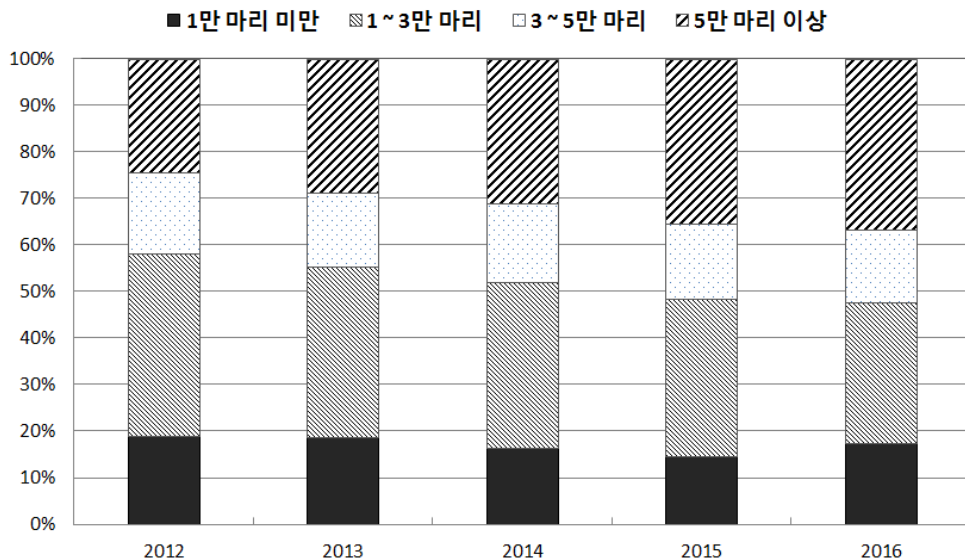
그림 24-3.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가구당 사육 마릿수



자료: 통계청

- 산란계 사육 규모화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던 5만 마리 이상 사육 가구수가 2016년 9월에는 2015년 9월보다 6.0% 감소하였다. 1만 마리 이상 3만 마리 미만, 3만 마리 이상 5만 마리 미만 가구수 또한 각각 18.7%, 11.6%씩 감소하였으나 1만 마리 미만 가구수는 8.9% 증가하였다.
- 사육 규모별 산란계 사육 마릿수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5만 마리 이상 사육 가구수는 산란계 사육 전체 가구수의 35.5%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 9월에는 36.7%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림 24-4. 산란계 규모별 사육 가구수 비중



자료: 통계청

### 1.2.2. 계란 수급 동향

- 2016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5년보다 2.7% 감소한 64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 수입량은 2015년보다 4.6% 증가한 1,800톤이었으며, 1인당 소비량은 2015년보다 3.1% 감소한 12.5kg이었다.

표 24-2. 계란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p)
국내생산	577.5	573.1	604.5	604.4	657.4	657.6	640.0
수입	2.1	2.9	2.6	2.3	2.3	1.7	1.8
1인당 소비량(kg)	11.7	11.5	12.1	12.0	13.0	12.9	12.5

☐ 2016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 2016년 1~11월 조란(구운란) 및 계란 가공품의 총 수입량은 2015년 동기간(1,572톤)보다 7.6% 증가한 1,691톤이었다. 계란 가공품 수입량이 국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2016년 기준)로 매우 낮으며, 신선란은 수입되고 있지 않으나 HPAI의 피해로 현재 수입을 검토 중에 있다.
- 2016년 1~11월 조란 수입량은 2015년 동기간(427톤) 대비 0.9% 감소한 423톤이었으며, 중국산이 91.1% 수입되었다. 계란 가공품 중 난백 수입량은 2015년 동기간(597톤)보다 30.6% 증가한 780톤이었다. 미국산 난황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동기간(547톤)보다 10.8% 감소한 488톤이었다.
- 2016년 11월에 발생한 HPAI의 피해가 산란계에 집중되면서 정부는 2017년 1~6월 한시적으로 생란 및 난가공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표 24-3. 계란 가공품 수입통관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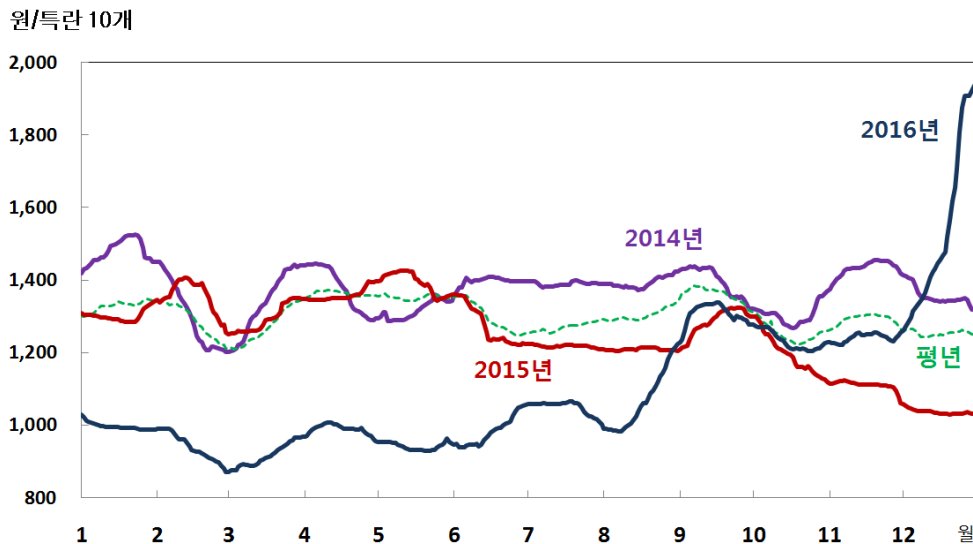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1월)
총수입	금액(천\$)	11,688	12,772	15,235	14,142	12,489	12,297
	수입량(톤)	2,892	2,771	2,494	2,332	1,700	1,691
조란	금액(천\$)	1,419	1,893	2,291	2,378	2,454	2,207
	수입량(톤)	385	376	370	394	461	423
난백	금액(천\$)	5,340	5,151	7,992	7,940	8,321	8,233
	수입량(톤)	623	547	704	660	662	780
난황	금액(천\$)	4,929	5,728	4,952	3,824	1,714	1,857
	수입량(톤)	1,560	1,677	1,226	1,278	577	488

자료: 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정보

### 1.2.3. 계란 산지가격 동향

-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6년 상반기 가격은 900원대를 머물다 여름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HPAI로 인한 매몰 처분으로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2016년 하반기 가격은 반등하였다. 그러나 상반기 하락폭이 워낙 커 2015년 연평균 가격(1,249원/특란 10개)보다 11.9% 하락한 1,101원(특란 10개)이었다.
- 2016년 8월까지 계란 산지가격은 2015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1~3월 평균가격은 950원으로 2015년 동기 대비 27.9% 하락하였다. 여름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7~8월 평균가격은 1,059원으로 1,000원 대를 회복하였으나 2015년 동기 대비 12.7% 하락한 수준을 보였다.
- 9월 계란 가격은 추석 명절과 고지방식단 보도의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5년보다 2.0% 상승하였다. 계란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10~11월 평균가격은 1,237원으로 2015년보다 7.4% 상승하였다. 11월 HPAI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매몰 처분과 이동제한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12월 평균 산지가격은 2015년보다 49.7% 상승한 1,551원에서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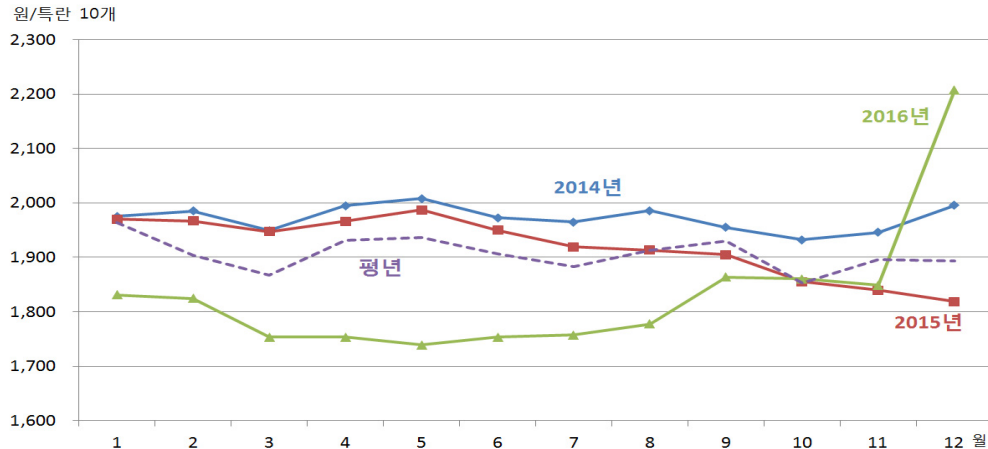
그림 24-5. 계란 산지가격 동향



☞ 평년은 2011~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계란 산지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격 또한 강세를 보였다. 2016년 12월 계란 평균 소비자가격은 2015년 대비 21.4%, 2016년 11월 대비 19.4%, 평년 대비 16.6% 상승한 2,207원(특란 10개)이었다. 특히, 12월 30일 소비자 가격은 2,746원을 기록하며 2015년(1,790원) 대비 53.4%, 2016년 11월(1,852원) 대비 48.3%, 평년(1,889원) 대비 45.3% 상승하였다.

그림 24-6. 계란 소비자가격 동향



☐ 평년은 2011~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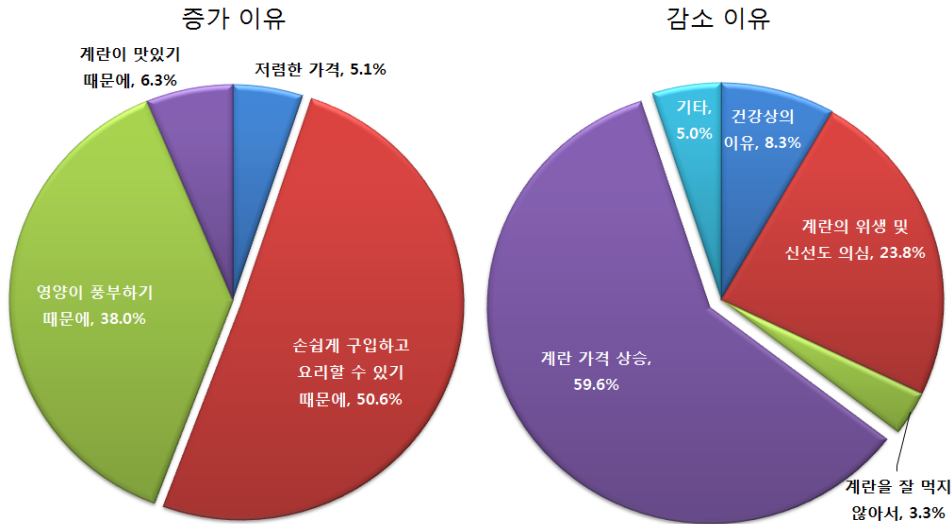
자료: aT 농산물유통정보

#### 1.2.4. 계란 소비패턴 분석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713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2~4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 조사 결과, 2016년 계란 소비를 2015년보다 늘렸거나 유지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86.5%였으며, 줄였다는 응답이 13.5%로 나타났다.
- 2017년 계란 소비를 2016년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은 33.2%, 줄이겠다는 33.7%로 계란 소비 증감비율은 비슷하였으나, 소비량 감소폭이 증가폭보다 크게 조사되어 2017년 계란 소비는 2016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 계란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로는 ‘손쉽게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50.6%),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38.0%) 순으로 선택되었다. 계란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로는 ‘계란 가격이 많이 올라서’(59.6%), ‘계란의 위생 상태와 신선도에 의심이 생겨서’(2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견에도 HPAI로 계란 구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과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의견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HPAI 발생이 소비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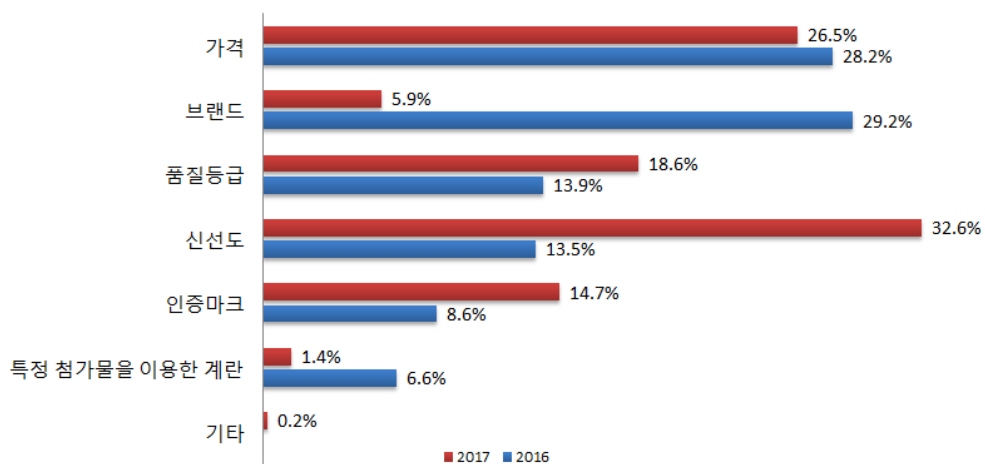
그림 24-7. 소비자의 계란 소비 증감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2017.1.2.~4. 713명 조사)

- 2016년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계란 구매 시 브랜드(29.2%), 가격(28.2%), 품질등급(13.9%), 신선도(13.5%)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2017년 소비자들의 계란 선택 기준을 보면 신선도(32.6%)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격(26.5%), 품질등급(18.6%)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8. 소비자의 계란 선택기준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가공된 계란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58.2%이었다. 소비자들의 가공란에 대한 인식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섭취 가능한 제품’(45.7%)이 가장 많았으나, ‘신선도가 낮은 오래된 제품’(14.3%), ‘방부제 등 화학첨가물이 많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13.5%)으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답변이 뒤를 이었다.
- 계란 한판(30개) 가격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에 대한 응답은 평균 5,881원이었으며, 최대 12,000원, 최소 3,000원으로 나타났다.

표 24-4. 계란 지불 의향 가격

단위: 원/특란 30개, 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가격(빈도)	5,881(681)	1,284	12,000(1)	3,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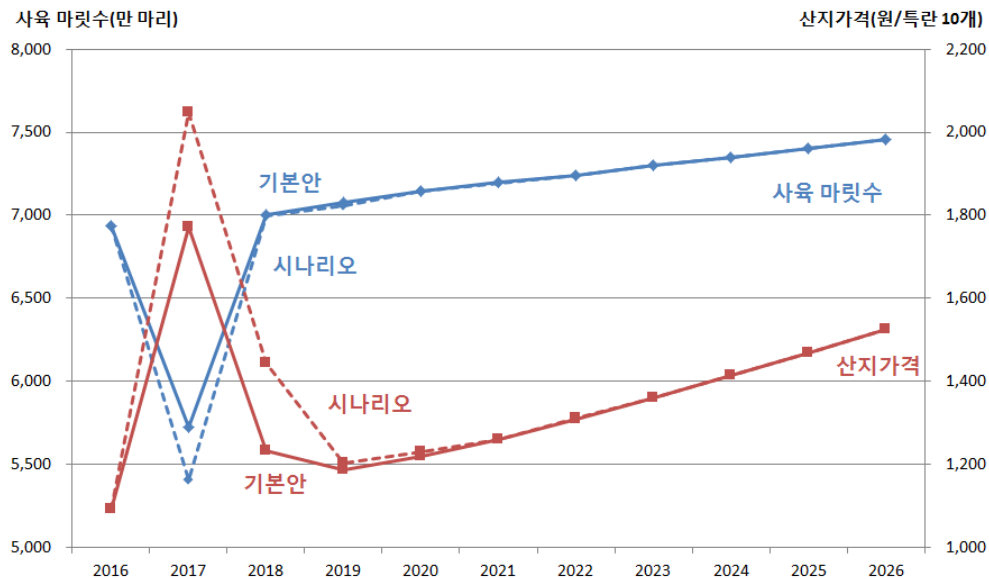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1.3.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 HPAI로 인한 산란계 매몰 처분으로 계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2017년 상반기 계란 산지가격은 지속적인 강세가 전망된다. 현재까지 매몰 처분 마릿수는 산란계 2,300만 마리(산란계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32.9%), 산란종계 43만 7천 마리(산란종계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51.5%)이다.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준(32.3%)과 산란계 40%가 매몰 처분 된다는 가정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전망하였다.
  - (기본안) HPAI가 현재 수준에서 진정
  - (시나리오) 매몰 처분 마릿수가 2,800만 마리까지 확대
- HPAI가 현재 수준에서 진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2017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16년보다 17.4% 감소한 5,727만수로 전망된다. 산란종계의 HPAI 피해로 2017년 산란계 입식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란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 감소로 이어져 2017년 계란 생산량은 2016년 대비 12.7% 감소한 55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계란 생산량 감소로 2017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2016년보다 12.9% 감소한 10.9kg으로 예상되며, 2017년 계란 산지가격은 2016년보다 62.3% 상승한 1,772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 HPAI의 피해가 확대되어 매몰 처분 마릿수가 2,800만 마리(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40%)까지 증가할 경우 2017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16년보다 22.0% 감소한 5,408만 수로 전망된다.

- 계란 생산에 새로이 가담하는 신계군 감소로 2017년 계란 생산량은 2016년 대비 14.9% 감소한 54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계란 생산량 감소로 2017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전년보다 15.0% 감소한 10.6kg으로 예상되며, 2017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87.5% 상승한 2,048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 산란중계 매물 처분으로 병아리 입식감소가 전망되나, 산란계 농가에서 산란성계의 생산기간 연장으로 병아리 입식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가에 병아리 입식제한이 해제되면 산란계 병아리 입식이 재개되어 HPAI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는 1~2년 이내에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산란계 사육 마릿수 2021년 7,197만 마리, 2026년 7,457만 마리로 전망된다.
-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은 2021년 69만 2천 톤, 2026년 71만 6천 톤으로 예상되며, 계란 생산량 증가로 1인당 계란 소비량은 2021년 13.3kg, 2026년 13.6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 생산 회복으로 계란 산지가격은 2019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1,259원, 2026년 1,524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24-9.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산지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표 24-5. 계란 수급 및 가격 전망

	구분	단위	2016	전망		
				2017	2021	2026
기본 안	사육 마릿수	만 마리	6,933	5,727	7,197	7,457
	계란 생산량	천 톤	640.0	558.6	691.5	716.3
	1인당 소비량	kg	12.5	10.9	13.3	13.6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 10개	1,092	1,772	1,259	1,524
시 나 리 오	사육 마릿수	만 마리	6,933	5,408	7,196	7,457
	계란 생산량	천 톤	640.0	544.6	691.4	716.3
	1인당 소비량	kg	12.5	10.6	13.3	13.6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 10개	1,092	2,048	1,260	1,524

주 1) 사육 마릿수는 분기별 평균치임.

2) 2016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 02 육계

### 2.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 2.1.1. 사육 동향

- 2014년 미국과 영국의 HPAI 발생으로 국내로의 육용 원종계(GPS: Grand Parental Stock) 수입이 금지되었다. 원종계 수입 금지로 2014년 원종계 수입(D-line 기준)은 당초 예정량보다 감소한 14만 7천 마리에 그쳤다. 2015년 원종계 주 수입국이 프랑스로 변경되었으나, 수입이 지연되고 줄어들어 2015년 원종계 수입은 13만 8천 마리로 2014년보다 5.7% 감소하였다.
- 국내로 수입되는 원종계의 계통은 로스(Ross), 코브(Cobb), 아바에이카(Arbor Acres), 인디언리버(Indian River)이었으나, 수입선이 프랑스로 변경되면서 추가로 하바드(Hubbard)가 수입되었다.
- 2016년 미국과 영국이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 원종계 수입이 재개되었다. 국내 5개 원종 업체는 수입선 정상화로 미국과 영국에서 기존에 수입하던 원종계 계통을 수입하였다. 특히 동우는 폴란드에서 하바드를 추가로 수입하였다. 2016년 원종계 수입은 전년보다 40.0% 증가한 19만 4천 마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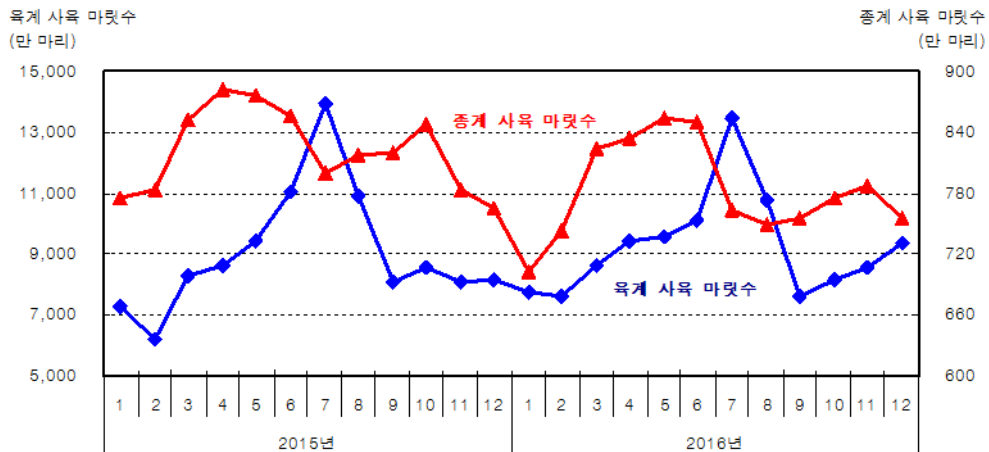
표 24-6. 2016년 육용 원종계 수입현황

원종계 수입사	계통	수입량(마리)	수입시기	수입국
삼화원종	로스	65,520	3월, 8월	영국
한국원종	아바에이카	41,000	1월, 7월	미국, 영국
하림	코브	42,098	6월, 11월, 12월	영국
동우	하바드	12,000	4월	폴란드
사조원종	인디언리버	33,280	1월, 6월, 7월,	미국, 영국

자료: 대한양계협회

- 2016년 원종계 수입 증가에 따른 사육 마릿수 회복으로 8월부터 종계 입식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700만 마리 이상의 종계가 입식되었으며, 2016년 종계 입식 마릿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728만 마리로 2015년보다 4.0% 증가하였다.
- 2015년 상반기 종계 입식 증가와 종계 생산기간 연장으로 2016년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대비 증가한 반면, 1~8월 종계 입식 감소로 육성계 사육 마릿수는 감소하였다. 육성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6년 평균 종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대비 4.7% 감소한 782만 마리로 추정된다.
-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의 증가는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이어졌다. 2016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8,935만 마리였다.
  - 2016년 5~6월 자율적 수급조절 사업으로 “육계 부화란 감축사업”, “병아리 랜더링 사업”이 시행되었고, 여름철 폭염 피해로 6~10월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동기간 대비 감소하였다.

그림 24-10. 월 평균 종계 및 육계 사육 마릿수



☞ 매년 3, 6, 9, 12월은 통계청 발표치임.

자료: 통계청, 대한양계협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6년 1~11월 육계 생산지수를 구성하는 4개 요소 중 육성률은 여름철 폭염 등의 영향으로 2015년 동기간에 비해 하락하였지만, 출하일령, 출하체중, 사료요구율은 전반적으로 좋아져, 계열사 평균 육계 생산지수는 311.8로 2015년(309.6)보다 0.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7. 평균 육계 생산성(1~11월)

	육성률(%)	출하일령	출하체중(kg)	사료요구율(kg)	생산지수
2016년	96.7	30.8	1.57	1.58	311.8
2015년	96.8	30.9	1.57	1.59	309.6
증감률(%)	-0.1	-0.1	0.2	-0.4	0.7

☞ 생산지수=육성률×출하체중/출하일령×사료요구율

자료: 한국육계협회

## 2.1.2. 닭고기 수급 동향

-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2016년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9억 8,956만 마리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도 2015년보다 증가한 59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16년 7월, HPAI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 증가 우려와 국내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닭고기 수입량은 2015년보다 7.5% 증가한 12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16년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릿수 증가와 닭고기 수입량 증가로 닭고기 공급량이 증가하였다. 2016년 1인당 소비 가능한 닭고기의 양은 13.9kg으로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24-8. 닭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p)
공급	계	596.5	609.1	608.9	672.2	709.7	734.1
	생산	456.5	463.7	473.4	527.9	585.3	599.0
	수입	130.9	130.4	126.7	141.4	118.6	127.5
	이월	9.1	15.0	8.8	2.9	5.9	7.6
수요	계	596.4	609.1	608.9	672.2	709.7	734.1
	소비	566.2	597.4	578.5	647.0	675.7	703.1
	수출	15.3	20.9	26.8	19.3	26.4	27.2
	재고	15.0	8.8	2.9	5.9	7.6	3.8
1인당 소비량(kg)		11.4	11.6	11.5	12.8	13.4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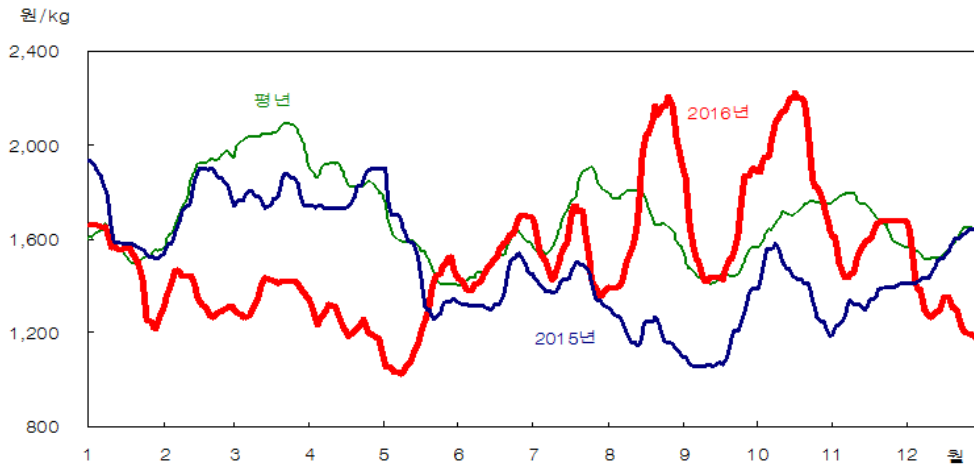
☞ 2016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1.3. 육계 산지가격 동향

- 2016년 일시적인 닭고기 공급 차질과 소비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이 2015년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2016년 평균 생체 kg당 산지가격은 1,513원으로 2015년(1,484원)보다 2.0% 상승하였지만, 평년보다는 11.1% 하락하였다.
- 닭고기 공급과잉 지속으로 2016년 1~5월 육계 산지가격은 2015년보다 20.4%, 평년보다는 23.6% 하락한 평균 1,342원/kg이었다. 2016년 5~6월 자율적 닭고기 수급조절 시행,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폐사 증가와 증체율 하락으로 육계 산지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6~10월 육계 산지가격은 2015년 동기보다 30.5%, 평년 동기 대비 5.0% 상승한 평균 1,706원/kg을 기록하였다.
- 11월 육계 산지가격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다큐 방영 영향으로 닭고기 소비가 증가해 2015년 동월 대비 19.4% 상승한 1,588원/kg이었다. 12월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공급 증가와 HPAI 발생으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2015년 동월보다 하락한 1,329원/kg이었다.

그림 24-11. 육계 산지가격 동향



☐ 평년은 2011~20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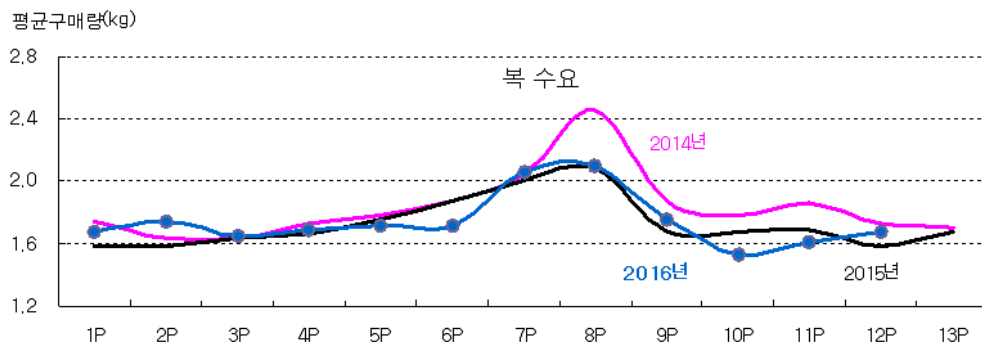
### 2.1.4. 닭고기 소비 패턴

- 2016년 닭고기 가정내 소비는 2015년 동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중 닭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철에 가정내 소비는 폭염의 영향으로 2015년보다 증가한 것



로 나타났다. 또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 다큐 방영 영향으로 11월 소비도 증가하였다. 2016년 가구당 4주 평균 구매량은 2015년(1.73kg)보다 0.8% 증가한 1.75kg이었다. 2014년(1.84kg)에 비해서는 5.4% 감소하였으며, 닭고기 소비는 평년(1.77kg/4주)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12. 4주 평균 가구당 닭고기 구매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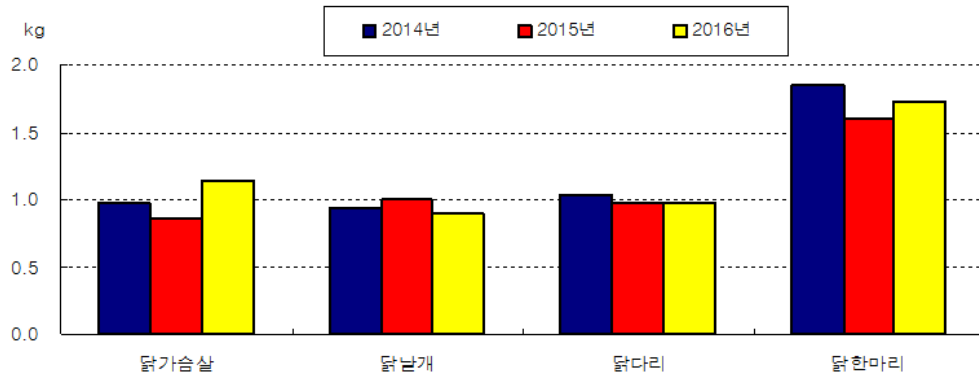


주 2016년은 12월 4일까지임.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2016년 4주 평균 가구당 닭가슴살, 닭한마리 구매량은 2015년 대비 증가하였고, 닭날개, 닭다리 구매량은 감소하였다. 4주 평균 가구당 닭가슴살 구매량은 2015년 동기간의 0.86kg보다 32.8% 증가한 1.14kg, 닭한마리는 2015년(1.60kg)보다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닭날개 구매량은 2015년(1.00kg)보다 11.3% 감소한 0.89kg, 닭다리 구매량은 2015년과 비슷한 0.97kg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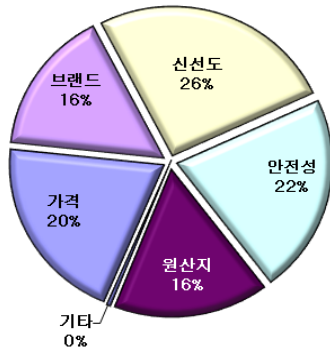
그림 24-13. 4주 평균 가구당 닭고기 부분육 구매 동향



2016년은 12월 4일까지임.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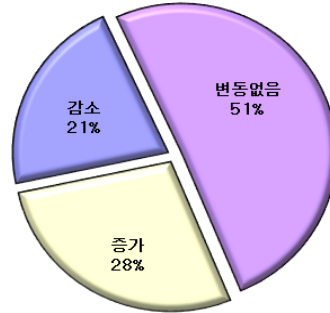
- 소비자 조사 결과, 2016년 닭고기 소비량을 2015년 대비 유지 및 증가시켰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 중 79%였으며, 감소시켰다는 응답률은 21%로 나타났다. 소비량 증가폭이 감소폭보다 크게 조사되어 2016년 닭고기 소비는 2015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닭고기 선택기준에 있어 신선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선도라는 응답률이 전체 응답 중 26%였으며, 이어 안전성 22%, 가격 20%, 원산지와 브랜드가 각각 16%로 나타났다.
  - 닭고기 선택 기준 중 안전성에 대한 비중은 2015년보다 6%p 상승하였다. 이는 2016년 HPAI 발생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닭고기를 신선육으로 구매하는 비율은 57.3%로 나타났으며, 가공품의 구매 비중은 42.7%였다. 가공품 구매 시 구입형태로는 치킨 구매가 4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즉석조리제품 20.0%, 레토르트 제품(삼계탕 등) 16.8%, 닭가슴살 가공품 14.1%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14. 닭고기 선택기준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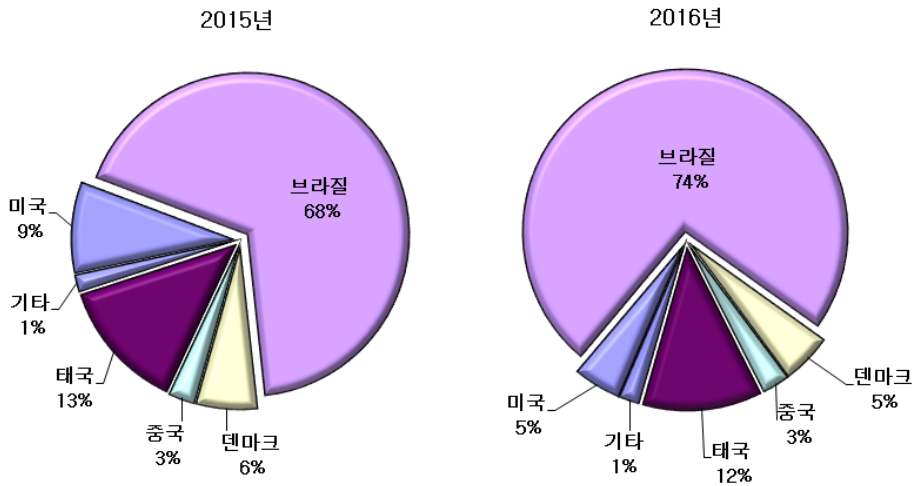
그림 24-15. 닭고기 수요변화(2015년 대비)



## 2.2. 닭고기 교역 여건 전망

- 2015년 11월 미국산 냉동 닭고기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가 2016년 1월 HPAI 추가 발생으로 또다시 수입이 금지되었다. 2016년 7월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국내 닭고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입량은 예년보다 크게 밀도는 수준이다.
- 2004년 태국에서 HPAI가 유행하여, 태국산 냉동 닭고기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었다. 그 동안 태국산 닭고기는 가공품으로만 수입되었다. 수입 금지 12년만인 2016년 11월, 태국산 닭고기 수입이 가능해졌지만, 2016년 태국산 닭고기 수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HPAI가 확산되어, 2016년 11월 덴마크산 닭고기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2016년 11월까지 덴마크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 비중은 5.3%이며, 주로 닭날개(냉동)와 닭발이 수입되었다.
- 2016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국가별 닭고기 시장점유율은 브라질 74%, 태국 12%, 미국 5%, 덴마크 5%, 중국 3% 순이었다. 브라질산 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보다 6%p 상승한 반면, 미국산 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은 4%p 하락하였다.

그림 24-16. 우리나라의 국가별 닭고기 수입 비중



☞ 2016년은 11월까지의 누적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7년 세계 닭고기 소비량 증가로 주요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16년 대비 2.2% 증가한 1,869만 톤, 브라질은 3.5% 증가한 1,408만 톤으로 전망되고, EU는 2015년보다 2.1% 증가한 1,130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HPAI 발생에 따른 종축의 수입 제한으로 2016년에 2015년보다 5.2%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9.4%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주요국의 닭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7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16년보다 1.0% 증가한 9,045만 톤으로 전망된다(USDA).
- 2017년 국가별 닭고기 수출량의 경우, 브라질이 2016년보다 6.7% 증가한 439만 톤, 미국은 5.0% 증가한 313만 톤, EU는 2.0% 증가한 128만 톤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량 증가로 2017년 세계 닭고기 수출량은 2016년보다 5.4% 증가한 1,137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7년 수입량은 일본의 경우 92만 톤으로 2016년보다 3.7%, 사우디아라비아는 84만 톤으로 1.2% 감소하지만, 멕시코와 EU는 각각 3.7%,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9. 주요국의 닭고기 수급 및 수출입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생산량			구분	소비량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률(%)
미국	18,283	18,690	2.2	미국	15,379	15,661	1.8
브라질	13,605	14,080	3.5	중국	12,715	11,705	-7.9
중국	12,700	11,500	-9.4	EU	10,570	10,785	2.0
EU	11,070	11,300	2.1	브라질	9,497	9,697	2.1
기타	33,890	34,878	2.9	기타	39,477	40,562	2.7
계	89,548	90,448	1.0	계	87,638	88,410	0.9
구분	수출량			구분	수입량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률(%)
브라질	4,110	4,385	6.7	일본	955	920	-3.7
미국	2,978	3,128	5.0	사우디	850	840	-1.2
EU	1,250	1,275	2.0	멕시코	820	850	3.7
태국	670	710	6.0	EU	750	760	1.3
기타	1,785	1,874	5.0	기타	5,585	5,926	6.1
계	10,793	11,372	5.4	계	8,960	9,296	3.8

주 2016년은 추정치, 2017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FA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Oct, 2016)

- 2017년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의 수출량은 2016년보다 증가하고(USDA),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IHS Global Insight).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인 미국과 EU산 닭고기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되어, 국내 수입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미, 한·EU FTA 체결 및 관세율 변화, IHS Global Insight의 환율 전망치와 수입단가 등을 이용하여 2026년까지 국가별 도매원가를 추정하였다. 관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2017년 미국과 덴마크산 닭고기 국내 도매원가는 2016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미국산 닭고기 도매원가는 kg당 1,437원, 덴마크산은 2,494원으로 전망된다.
- 2017년 브라질산 닭고기는 환율과 수입단가 상승, 현행 관세율 유지로 국내 도매원가가 2016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브라질산 닭고기 도매원가는 kg당 2,755원으로 예상된다.
- 2017년 이후 닭고기 수입단가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 도매원가는 2026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산과 미국산 닭고기의 도매원가는 관세철폐(덴마크산

2020년, 미국산 2021년 완전 철폐)에도 불구하고 2026년 kg당 각각 2,987원, 1,744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관세유지 영향으로 미국산과 덴마크산 닭고기 도매원가보다 상승폭이 더욱 커져, 2026년에 kg당 3,589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10. 수입 닭고기 가격 동향과 전망

구분	2016		전망		
			2017	2021	2026
환율 (원/US\$)	1,159		1,161	1,167	1,174
수입단가 (\$/kg)	미 국	1.0	1.1	1.2	1.4
	브라질	1.8	2.6	2.7	3.1
	덴마크	1.8	1.8	2.0	2.3
관세율 (%)	미 국	10	8	0	0
	브라질	20	20	20	20
	덴마크	8	6	0	0
도매원가 (원/kg)	미 국	1,429	1,437	1,493	1,744
	브라질	2,696	2,755	3,071	3,589
	덴마크	2,469	2,494	2,647	2,987

- 주 1) 2016년 이후 환율은 IHS Global Insight 전망치임.  
 2) 2016년 수입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2016년 이후 수입단가는 미국 농무부 농업전망 2016 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3) 미국과 덴마크는 FTA 이행으로 관세율 20%를 2012년(덴마크는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철폐함.  
 4) 브라질은 현행 관세율 그대로 유지함.  
 5)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6) 미국산 도매원가는 지육, 브라질은 정육 가격임.

## 2.3.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 2.3.1. 중기 선행관측

- 2016년 1~8월 중계 입식이 2015년 동기간에 비해 감소하여 2017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은 2016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HPAI 발생으로 종란 923만 개가 폐기 되었으며, 육용 중계 80만 마리가 매몰 처분 되었다.
- 육용중계 입식 마릿수와 HPAI 피해를 고려한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17년 1~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지수는 2016년 동기간보다 10.8%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7년 1~4월 잠재력 지수는 2016년 동기간에 비해 평균 13.6% 낮게 나타났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점차 감소폭이 축소되어, 6월 이후 전년 수준으로 추정된다.
-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낮아 2017년 상반기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릿수는 2016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11.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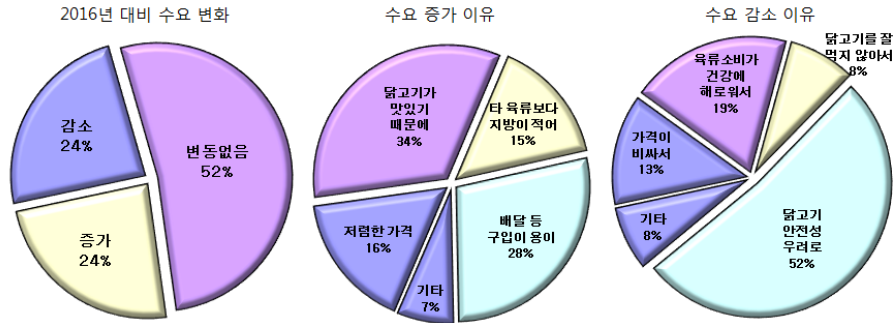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7년	85.1	83.1	78.7	80.3	87.8	93.0
2016년	100.0	93.5	92.1	93.2	94.7	95.6
전년대비 증감률(%)	-14.9	-11.2	-14.5	-13.9	-7.3	-2.7

☞ 육용 중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7개월 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2016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 소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닭고기 소비량을 2016년보다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였으며, 감소시키겠다고 응답률도 24%로 나타났다. 2016년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 하겠다고 응답은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닭고기 소비량 증감 응답비율은 같지만, 소비량 증가폭보다 감소폭이 더욱 커 2017년 닭고기 수요는 2016년보다 2.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 닭고기 수요증가 이유로는 '닭고기가 맛있기 때문에'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 등 구입이 용이' 28%, '저렴한 가격' 16%, '타 육류보다 지방이 적어' 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소 이유로는 '닭고기 안전성 우려'가 52%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육류소비가 건강에 해로워서' 19%, '가격이 비싸서', '닭고기를 잘 먹지 않아서'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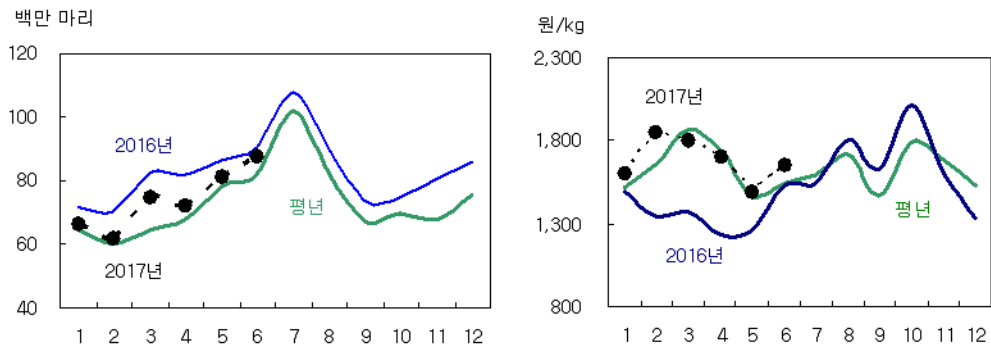
그림 24-17. 2017년 닭고기 수요 변화 및 수요증감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2017년 1~6월 도계 마릿수는 2016년 동기간보다 8.0% 감소한 4억 4,482만 마리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1~4월 도계 마릿수는 2016년보다 10%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계 마릿수 감소로 2017년 상반기 닭고기 공급량은 2016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상반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600~1,700원/kg으로 2016년 동기간 대비 16~2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18. 2017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 및 육계 산지가격 전망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 및 전망치



### 2.3.2. 중장기 전망

- 2016년 1~8월 종계 입식 마릿수 감소와 HPAI 발생 피해로 2017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2016년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이후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 병아리 생산 및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도계 마릿수는 2016년보다 1.7% 증가한 10억 595만 마리로 추정된다(연평균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16년 대비 1.8% 증가한 9,100만 마리).
-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량 증가로 닭고기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육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9,791만 마리, 2026년 1억 719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7년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사육 및 도계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1.7% 증가한 60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수입량(통관 기준)은 미국산과 태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로 전년보다 5.6% 증가한 13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 닭고기 수입량은 점차 확대되어 2021년 닭고기 수입량은 14만 2천 톤, 2026년 14만 4천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 2017년 하반기 닭고기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반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17년 육계 산지가격은 생체 kg당 1,559원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적인 닭고기 수요 증가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수요 증가로 2021년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1,656원, 2026년 1,972원으로 전망된다.

표 24-12. 닭고기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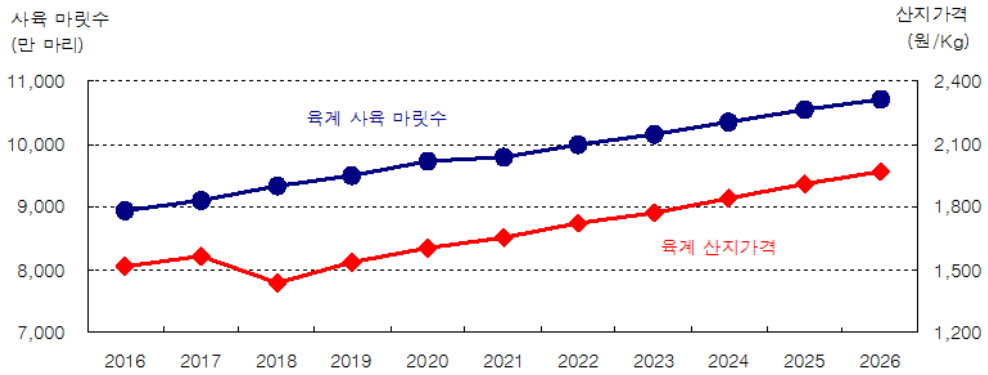
구 분	단위	2016	전망		
			2017	2021	2026
사육 마릿수	만 마리	8,935	9,100	9,791	10,719
생산	천 톤	599.0	608.9	628.6	661.9
수입	천 톤	127.5	134.6	142.3	144.2
1인당 소비량	kg	13.9	14.1	14.3	14.6
산지가격	원/생체kg	1,513	1,559	1,656	1,972

☞ 1) 1인당 소비량은 정육 기준임.

2) 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그림 24-19. 육계 사육 마릿수 및 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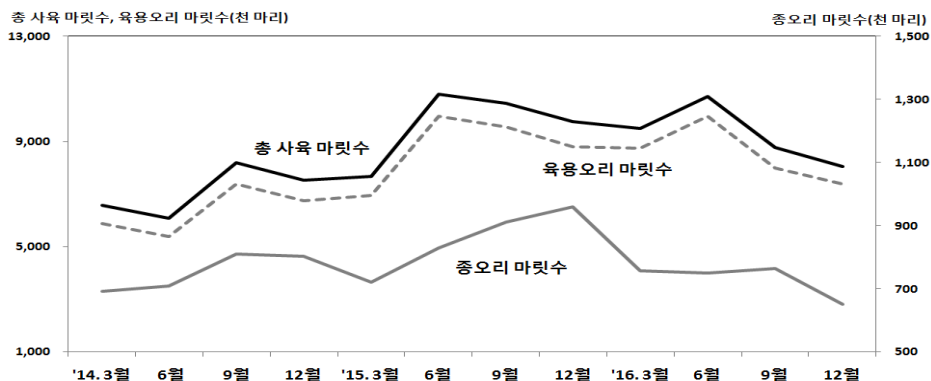
## 03 오리

### 3.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 3.1.1. 사육 동향

- 2014/15년 HPAI 발생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까지 종오리 입식이 증가하여 2016년 3월부터는 육용오리 마릿수가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오리고기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2016년 3월부터 종오리 감축 사업을 통한 오리고기 수급조절이 실시되었다.
- 종오리 감축 사업(2016년 3~5월 2차례 시행)으로 총 사육 마릿수는 2016년 6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2015년(967만 9천 마리)보다 4.3% 감소한 925만 8천 마리였다. 이 중 종오리는 2015년(85만 6천 마리)보다 14.6% 감소한 73만 1천 마리이며, 육용오리는 2015년(882만 3천 마리)보다 3.3% 감소한 852만 8천 마리였다. 2016년 11월 16일 HP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12월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오리 사육 가구수(2016년 9월 기준)는 오리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2015년보다 17.1% 감소한 639가구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사육 가구수의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1만 3,724마리였다.

그림 24-20. 오리 사육 마릿수



자료: 통계청

### 3.1.2. 오리고기 수급 동향

- 2016년 오리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2015년 5월~2016년 4월 종오리 입식 마릿수는 HPAI의 영향으로 입식이 줄었던 전년 동기보다 48.6%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오리 입식 마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오리 감축 사업과 HPAI 발생으로 오리고기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16년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는 2015년(6,528만 마리)보다 2.2% 감소한 6,384만 마리였다. 2016년 총 도압 마릿수는 7,004만 마리로 2015년(7,105만 마리)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6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5년(11만 8,328톤)보다 감소한 11만 6,636톤으로 추정된다.
- 2016년 오리고기 수입량은 3,355톤으로 2015년(3,130톤)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고기 총 공급량 감소로 1인당 소비량은 2015년보다 감소한 2.3kg으로 추정된다.

표 24-13. 오리고기 수급 동향

단위: 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p)
공급	생산	154,514	169,568	158,303	106,450	118,328	116,636
	수입	4,270	3,661	2,942	2,949	3,130	3,355
	계	158,784	173,229	161,245	109,399	121,458	119,991
수요	소비	158,764	173,229	160,948	109,399	121,458	119,991
	수출	20	0	297	0	0	0
	계	158,784	173,229	161,245	109,399	121,458	119,991
1인당 소비량(kg)		3.1	3.4	3.2	2.2	2.4	2.3

☞ 1) 수입은 정육·지육, 열처리 포함.

2) 2016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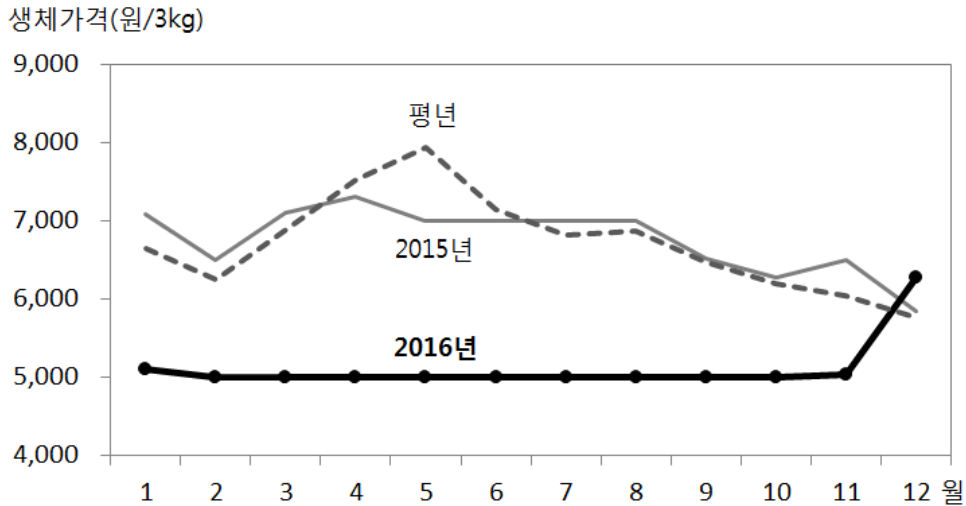
자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1.3. 오리 산지가격 동향

- 2013년 종오리 조기 도태와 종란 폐기로 사육규모가 축소되어 오리고기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산지가격은 2012년 대비 9.5% 상승한 3kg당 6,311원이었다. 2014년에는 HPAI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13년 대비 26.4% 상승한 7,974원이었다.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5년 오리 산지가격은 2014년 대비 15.2% 하락한 6,760원이었다.

- 2015년 하반기 이후 육용오리 입식 증가로 인한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와 지속적인 소비 부진으로 2016년 11월까지 오리고기 산지가격은 5,000원 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6년 11월 16일 HPAI 발생으로 오리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12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월보다 24.8%(전년보다 7.6%) 상승한 6,281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4-21. 오리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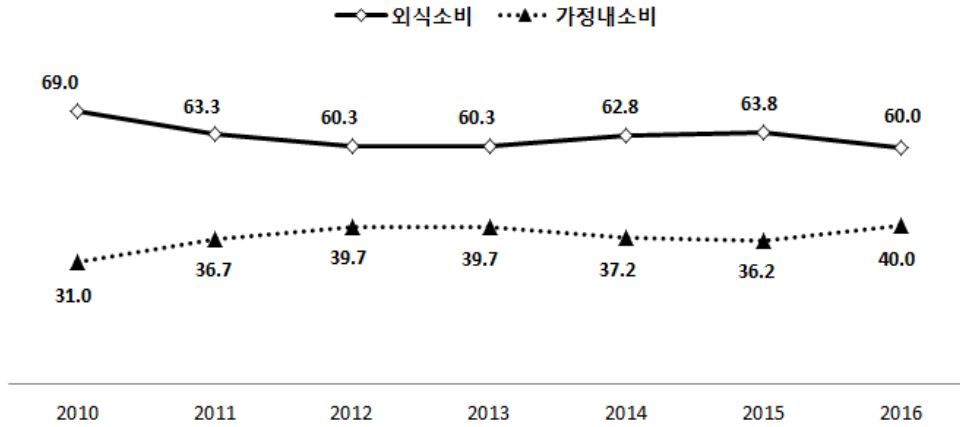


자료: 한국오리협회

### 3.1.4. 오리고기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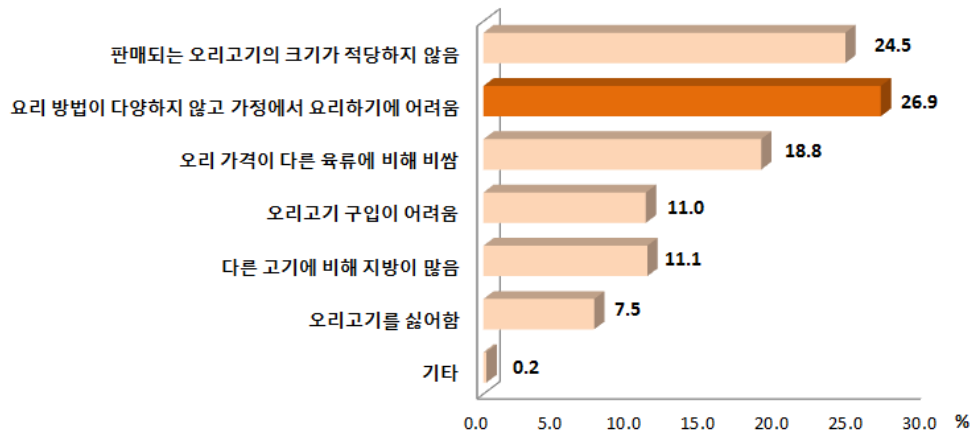
- 소비자들은 오리고기 소비 시 가정내 소비(40.0%)보다 외식 소비(60.0%)를 더 선호하였다. 2012년 이후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 외식소비 비중이 2015년 대비 감소하고 가정내 소비는 증가하였다.
-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가 부진한 이유로는 ‘요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리하기에 어려워서’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되는 오리고기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이 24.5%, ‘오리고기 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쌌’이 18.8%, ‘다른 고기에 비해 지방이 많음’이 11.1%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제품 크기의 다양화와 레시피에 대한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림 24-22. 오리 소비 형태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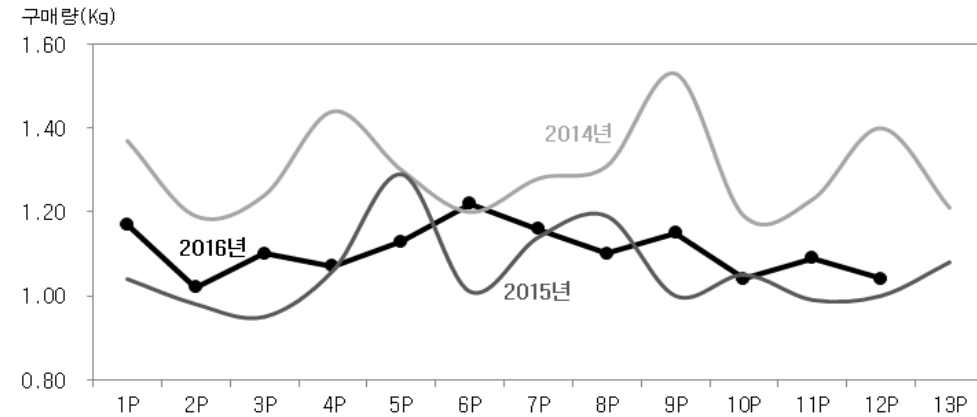
그림 24-23.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 부진 원인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2016년 가구당 4주 평균 오리고기 구매액은 kg당 14,000원으로 2015년(14,925원)보다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오리고기 구매량은 2015년(1.06kg)보다 4.5% 증가한 1.11kg으로 조사되었다. 오리고기의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가구당 평균 오리 구매량(가정내 소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오리고기의 외식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24. 가구당 오리고기 평균 구매량 변화



2016년은 12월 4일까지임.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3.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종오리와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종오리 감축 사업과 최근 HPAI 발생으로 2016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감소한 11만 7천 톤이었다.
- 2016년 11월 HPAI 발생으로 현재(2017년 1월 11일)까지 오리는 총 245만 마리(사육의 28.0%)가 매몰 처분되었다. 이 중 종오리가 32만 8천 마리(42.9%), 육용오리 212만 2천 수(26.5%)가 매몰 처분되었다.

표 24-14. 7차 HPAI 오리 매몰 처분 마릿수(2017.1.1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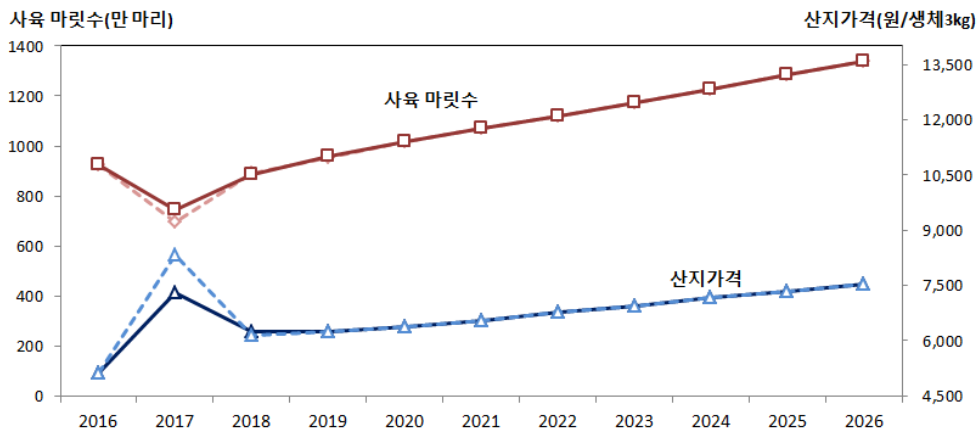
	육용오리	종오리
매몰 처분 마릿수(만 마리)	212	33
사육 대비(2016.9.기준, %)	26.5	4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현재 HPAI의 발생은 소강상태이나 매몰 처분 마릿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매몰 처분 마릿수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수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 (기본안) 종오리 매몰 처분 마릿수 32만 8천 마리(현 수준, 사육의 43%)
  - (시나리오) 종오리 매몰 처분 마릿수 38만 마리(사육의 50%)

- 종오리가 32만 8천 마리(현 수준, 사육의 43%) 매몰 처분되었을 때, 2017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6년보다 19.9% 감소한 742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6년 대비 16.7% 감소한 9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7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6년보다 42.5% 상승한 7,295원(생체 3kg)으로 전망된다.
- 종오리가 38만 마리(사육의 50%) 매몰 처분 되었을 때, 2017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6년보다 24.9% 감소한 695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6년 대비 20.9% 감소한 9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7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6년보다 63.0% 상승한 8,341원으로 전망된다.
- 2017년 이후 오리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년 이내에 HPAI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1,070만 마리, 2026년 1,337만 마리로 전망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2021년 13만 4,323 톤, 2026년 16만 2,930톤으로 예상된다.
-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7년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1년 2.6kg, 2026년 3.2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리 산지가격은 2021년 6,549원, 2026년 7,528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25. 오리 사육 마릿수 및 가격 전망



주: 실선은 기본안, 점선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표 24-15. 오리고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6	전망			
			2017		2021	2026
			(기본안)	(시나리오)		
사육 마릿수	만 마리	926	742	695	1,070	1,337
생산	톤	116,636	98,985	93,962	134,323	162,930
수입	톤	3,355	4,787	6,120	3,704	4,293
1인당 소비량	kg	2.3	2.0	1.9	2.6	3.2
산지가격	원/생체 3kg	5,118	7,295	8,341	6,549	7,528

☞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 제품의 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